



메트로이더넷포럼 회원수 순증...캐리어이더넷 시장 순항

홍콩=조지연기자 digerati@inews24.com

메트로이더넷포럼(MEF)이 1년새 회원수를 30% 이상 늘리며 캐리어 이더넷 시장에서 순항하고 있다.

MEF는 전세계에 캐리어 이더넷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인증을 진행하는 조직으로 서비스제공업자(SP)를 비롯해 케이블 사업자, 네트워크 장비업체,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MEF의 대표적 회원사로는 AT&T를 비롯해 PCCW, 버라이즌, 시스코, 알카텔-루슨트, 주니퍼, 노텔, 화웨이, 레드백 등 참가하고 있다.

년 첸 MEF 의장은 "지난해 12월 100개 회원사였던 것이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137개 회원사로 증가했다"며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크는 이더넷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으며 오는 2010년까지는 200억 달러까지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캐리어 이더넷은 지난 2005년에 도입된 개념으로 LAN 기반의 이더넷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해 광대역네트워크(WAN) 구간까지 이더넷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이더넷에 표준화 서비스, 확장성, 신뢰성, 서비스 관리, 서비스 품질(QoS)의 5가지 항목을 추가한 것이 바로 캐리어 이더넷이다.

첸 의장은 "전세계적으로 협업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데 이더넷 인프라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MEF는 캐리어 이더넷의 표준화 및 서비스 업체 인증을 통해 서로 다른 캐리어 이더넷 네트워크간 상호운용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MEF는 오는 2008년부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관련기사 보기

- 메트로이더넷포럼, 뉴욕에서 월드투어 시...
- 캐리어이더넷 '주목'...MEF 회원 100...

• **특고** | 메트로이더넷포럼, 이더넷, 캐리어 이더넷,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2007년 10월 21일 오후 16:11